
**“박근혜 정부 2년,
통일업무 이렇게 추진했습니다”**

2015. 2. 25



목 차

□ 주요 성과

1. 「한반도 신뢰프로세스」 지속 추진 1
 2. 「통일준비위원회」 출범 및 활동 3
 3. 「DMZ 세계생태평화공원」 조성 추진 4
 4. 젊은 세대들의 통일공감대 형성 5
 5. 「한반도통일미래센터」 개소 8
 6. 북한 인권 개선 노력 9
 7. 대북 인도지원 규모 확대·개선 10
 8.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11
 9.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12
 10.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토대 마련 13
 11. 탈북민 맞춤형 정착 지원 확대 14
- <붙임> 주요 통계 16

1. 「한반도 신뢰프로세스」 지속 추진

□ 「한반도 신뢰프로세스」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의연하고 일관되게 추진

- 남북간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
 - 남북대화를 통한 신뢰 형성 노력을 지속,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을 추진
 - * △4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개최('14.2), △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에 합의('13.7~8) △2차 고위급접촉 제의('14.8), 통준위 명의 회담 제의('14.12) 등
- 북한의 도발과 위협,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게 대응
 - NLL·MDL 인근에서의 북한 도발에는 교전수칙에 따라 대처
 - 북한이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은 채, 한·미군사훈련 중단, 5.24조치 해제,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데 대해,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.

□ 「드레스덴 구상», 「3대 통로」 등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고 통일의 초석을 쌓을 수 있는 발전구상 제시

-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적인 접근법 추구(‘작은 통일 → 큰 통일’)
 -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지속하는 한편,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 협력 방안도 제시
 - * 드레스덴 구상('14.3.28) : △인도적 지원, △민생인프라 구축, △남북한 동질성 회복
 - * 3대 통로('14.8.15) : 남북간 소통의 통로를 통한 생활공동체 형성(환경, 민생, 문화)

□ 국제사회와 협력,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확산 노력도 적극 전개

- 1트랙/1.5트랙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축, 주요 4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대북·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
 - * △국제통일전략대화(연 7회)를 통한 주요국 당국자간 협의 △10여개국 정부관계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.5트랙의 한반도국제포럼 개최('14.9월) △중국지역 전문가들과 정례적 네트워크 강화 등

- 독일통일 경험 공유를 위해 통일부-독일 연방 경제·에너지부간 「한독 통일자문위원회」 구성·운영 중

* 2011년부터 한독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연 1회 개최, 제4차 회의를 베를린에서 개최('14.9월)

- 재외 동포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통일지지 기반 확대
- 한·미 동맹과 한·중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

2. 「통일준비위원회」 출범 및 활동

-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협업기구인 「통일준비위원회」를 발족('14.7.15)하여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
 - 민간전문가, 정부부처, 여·야 정책위의장, 국책연구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

- 통일에 대한 범정부적·범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고, 통일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며, 통일을 향한 국민의 의지를 결집
 -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5개 분야 17개 핵심과제 확정, 추진 중
 - ①통일헌장 등 통일청사진 제시, ②인도적 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, ③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, ④상생과 융합의 생태환경 통합, ⑤국민 통일공감대 확산
 - * 대통령 주재 회의 4회 개최(8.7, 10.13, 12.2, '15.2.16), 분과위원회 회의(수시), 공개 세미나(4회), 분과별 시민자문단회의(5회)

-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
 - 우리 국민들은 「통일준비위원회」 설립 등 통일준비에 대해 78.3%의 찬성 의견('14.12.14, 통일부 조사)
 - '통일대박 가능하다' 등의 세미나 개최(4회) 등 생활 속에서 통일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노력
 - 언론·시민·교육자문단 회의를 개최,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추진
 - * 평화통일상 제정 추진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 노력

- 한반도 평화통일과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충
 - 미국(4.25), 중국(7.3), 캐나다(9.22) 등 각국의 정상들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 확보

3. 「DMZ 세계생태평화공원」 조성 추진

□ 남북합의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 사전준비 추진

○ 공원구상 구체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

- △통일부 전담기획단 설립(13.5) △범부처 합동 마스터플랜 수립(13.7) △관계 부처 협업체계 구축(사안별 실무협의 36회 개최)

○ 공원조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용역 추진

- △기본구상(14.2~3) △추진전략(~15.3) △법제도 기반(~15.3) △기본계획(~15.7) △지뢰제거 방안(~15.3) 등 5건(총 5.4억원 규모)

○ 입지선정을 위한 동부·중부·서부권 후보지 현지조사 실시

- △장단점 분석 △공원 컨셉 도출 등에 활용(1차: '14.12.10~12 2차: '15.4~5월 예정)

□ 대내외 지지기반 확대를 통한 사업 추진동력 강화

○ 정상외교 등의 계기 활용, UN 및 유관국 지지 확보

- △美 상하원의회 연설(13.5.8, 최초제안) △유엔 사무총장 방한(13.8) △獨 드레스덴 연설(14.3.28) △UN총회 연설(14.9.25, 명칭변경) 등

* 실무차원에서 △美 국무부 △中 외교부 △UN사무국 △유엔사 등 대상 설명 및 협조 요청

○ IUCN 등 생태·환경 분야 국제기구와의 연계 강화

- △CBD 당사국총회 계기 국제심포지엄 개최(14.10.8, 평창) △세계공원총회 대표단 파견(14.11.13-15, 호주) △람사르협약 상임위 대표단 파견(15.1.25-30, 스위스)

○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사업 추진

- △국민공감 심포지엄 개최(15.2.24) △UCC공모전 추진(15.2.23~5.22)

□ 북한과의 협의 가능성에 대비

○ 적절한 계기시에 남북협의 및 공원조성 착수 준비

* △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남북제의(13.8.15) △통준위 명의의 남북대화 제의(14.12.29) △람사르 협약 상임위시 북측 관계자에게 공원구상 설명(15.1.28)

4. 젊은 세대들의 통일공감대 형성

□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·감성형 통일교육 확산

- 통일교육주간을 제정, 통일문제에 대한 소통·공감의 장 형성
 - *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, 일일통일교사 등을 통해 일선학교 계기수업 참여 확대('13년 82.5% → '14년 96.2%), 통일교육 홈페이지 접속 10배 증가(1만명/일) 등
- 놀이·문화를 접목한 참여·체험형 교육프로그램 대폭 확산
 -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강의안, 놀이형 교구재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실시(전국 556개교)
 - 어린이기자단(4~12월), 청소년 통일리더캠프(5~12월), 제1회 청소년 통일문화경연대회(10월)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
-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성형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
 - EBS 청소년 통일드라마 공동기획('스승한 그대', 5부작) 및 공감영상(4종)·애니메이션(2종)·뮤직비디오(2종) 제작 보급

□ 학교통일교육 지원 내실화

- 정규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(5.26)하고 체계적인 통일교육 협업기반 마련
 - 제2회 통일교육주간, 학교통일교육연구대회 공동운영 및 교원 대상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공동활용
- 교육부와 협업, 정부 최초로 일선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실시
 - 전국 200개교 12만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인식, 통일교육 현황 등에 대해 심층조사, 청소년 통일교육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
-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 지원 강화
 - 일선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용 부교재, 놀이·체험형 교구 등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보급 확대 노력
 - 통일교육 연구학교(51개교) 지원 및 학교 통일체험교육 경비지원
 - 초·중·고 교원 대상 통일교육과정(초청교육 및 사이버교육) 운영(7,500여명)

□ 「통일문화주간」 운영 등 통일문화적 접근 추진

- '14. 4월 통일문화네트워크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문화예술인들과 네트워킹을 해나가면서 통일문화운동 전개
 - (사)통일문화네트워크 발족('14.6.27) 등 제도적 기반 마련
- 광화문 광장 등에서 「2014 통일문화 주간 행사」 (10.25~11.1) 개최
 - 민간과의 협업 하에 미술·영화·음악·패션 등 다양한 분야의 통일 문화행사 추진
 - 행사 과정에서 각계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, 통일문화운동의 활성화 기반 마련
 -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문화행사를 즐기는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통일문화적 접근(통일문화운동)의 첫 출발

<2014 통일문화주간 행사>

행사명	기간	장소	내용
파주평화발전소 미술제	10.11~11.30	파주 지혜의 숲, 도라산역, 판문점	· 분단과 평화 소재 국내외 작가 18명의 현대미술 작품 전시 · '평화탈레이 토크' 진행
남북영화상영전	10.25~10.31	CGV·롯데시네마 (20개관)	· 분단과 통일 주제 우리영화, 북한 소재 해외영화, 북한영화 등 8편 무료 상영
광화문광장 행사	10.31~11.1	광화문 광장	· To be One 콘서트 : 부활, 인디밴드, 청춘합창단 등 · 통일디자인쇼 : 통일 주제 패션쇼 · 통일국악한마당 : 춤·농악·민요·판소리 등 · 청소년통일문화경연대회 : 청소년들의 통일노래 창작 경연대회

□ 방송사 협력 프로그램

- 사회적 파급력이 큰 KBS·EBS와 협력, 통일 소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·방영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
 - KBS, EBS 측과 MOU 체결 후 제작
 - * 통일부-KBS MOU('14.2.17), 통일부-국민대통합위-민주평통-EBS MOU('14.3.3)

방송사	프 로 그 램	효 과
KBS	특집 「별친구」 (2부작) 1.25/2.1방영	누적 315만명 시청
	통일다큐 「통일한국을 그리다」 (3부작) 10.21/10.28/11.4 방영	누적 1,095만명(편당 365만명) 시청
EBS	「통일채널 e」 (6부작) 본방영(8.7/8.14/8.21), 재방영(10.3/10.10/10.17)	누적 206만명 시청
	청춘 통일콘서트 「통일 DREAM」(4부작) * 통일인식제고 국민대토론회 촬영·방영	누적 81만명 시청
	청소년 대상 통일 드라마 「숨쉬는 그대」(5부작) 11.19(1·2회)/11.20(3·4회)/11.21(5회)	누적 137만명 시청

- 그 외에도, 젊은이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뉴미디어 홍보 수단인 「Webtoon」 을 활용,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형성
- 「청둥아 진정해!」 (12화)<윤필 작>, Daum 탑재('14.10.27~'15.1.12, 매주 월)

5. 「한반도통일미래센터」 개소

□ 개관('14.11.12)을 통해 정부차원의 통일체험연수 본격 착수

○ 국내 최대 규모 통일체험연수 및 남북교류 지원센터 출범

- 임진-한탄강 합수머리, 38도선 통과, 중부원점 등 상징성 높은 장소

○ 강의식 통일교육을 탈피, 참여형 통일체험연수로 혁신적 전환

○ 미래지향적 통일관과 건전한 안보관을 균형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센터내 자체 프로그램과 안보현장 견학 프로그램 연계 운영

- * 통일미래체험관 운영 : 문화, 관광, 물류, 자원의 4개 영역 20여개 아이템에서 각 분야별 통일 전·후의 편익을 직접 비교체험 가능

○ 내실있는 시범운영('14.11~'15.2)으로 정상운영('15.3월~)에 착실히 대비

- 46개 학교·단체 연인원 4,647명 대상 시범운영 실시('15.2월말 기준)

- * 표준프로그램(18회 1,942명), 특화프로그램(22회 916명), 시설 대관(6회 1,789명)

□ 실질적 통일준비 시설로서 남북교류행사 지원

○ 설립취지에 따라 공식 개관 이전부터 남북청소년 교류 지원시설로서의 역할 수행

- 국제청소년 유소년축구대회 북한 선수단 체류 및 교류행사 지원 ('14.11.3~11.11)

○ 향후 남북교류행사 지원 허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및 협의 추진

- * △접근성 감안시 이산가족 행사 △보안성 감안시 남북실무회담 개최의 최적지

□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친화적 의식 확산

○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(무용론, 연기론) 개선 및 통일편익 등 통일한국의 미래상 공유

○ 남남갈등 해소 및 국민대통합 구현을 위한 연대의 공간으로 기능

○ 광복 70주년 계기 국제행사 기획 및 적극 유치

6. 북한인권 개선 노력

□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동참

- 계기시마다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
 -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('14.3.28) 및 제69차 유엔 총회('14.12.19) 북한인권 결의, 북한인권 문제의 유엔 안보리 의제화('14.12.22)
- UN의 북한인권 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협력 강화
 - UN의 북한인권 조사를 위한 현장기반 조직의 국내 유치 결정('14.5.28)
 - * 북한인권조사위원회(COI), 인권최고대표사무소(OHCHR)내 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직 설치 권고
- 제69차 유엔총회에서 보다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('14.12.18)
 - 유엔 안전보장이사회, 북한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('14.12.22)
 - * 결의안 주요 내용 : △북한내 인권침해 상황을 '인도에 반하는 범죄'로 간주, △북한상황 ICC 회부 권고, △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제재 방안 검토 촉구

□ 대내적으로 북한인권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

- 「북한인권법」 관련, 여·야는 黨 차원의 통합법안을 발의, 외교 통일위원회 상정('14.11.24) 및 공청회 개최('14.12.19)
 -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
 - * 17대·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(총8개)이 발의되었으나,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임기만으로 폐기
-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, 세미나, 포럼 등 학술행사와 공연, 전시회, 시사회 등 활동을 지원,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
 - * '15.2.25 현재 우리부에 등록된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: 총30개

7. 대북 인도지원 규모 확대·개선

□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 지속 추진

- '13년 WHO(605만불) 및 UNICEF(604만불) 영유아지원사업 지원
- '14년 들어서는 UN과 함께 「모자보건사업」 추진
 - WFP 영양식 지원(700만불)을 7년만에 재개, WHO 영유아 건강증진사업(630만불) 지속, 신규 수혜자 확대(68만명)

단체	'13년도	'14년도	북한주민 수혜
WFP	-	9개도 87개군 18,853개 기관 대상 영양보충제 제공(68만명 대상)	전년대비 68만명 신규수혜
WHO	의료인력 교육(약 3,700명) 436개 의료시설 대상 의료물품 및 의료설비 지원	의료인력 교육(약 3,700명) 436개 의료시설 대상 의료물품 지원 의료시설 개선	전년대비 수혜자 동일

*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(반출기준) : '13년 133억원 → '14년 141억원

□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영유아 질병 예방·영양 공급 지원

- '14년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5년만에 재개
 - 각 사업당 2-3개 '리' 단위의 사업을 추진, 9만명 신규수혜 예상
 - * 보건·농업·축산 분야 13개 단체(총 30억원 규모로 추진 중)
- 민간단체 자체 재원으로도 영양식·의약품 등 지원
 - '13년 51억원, '14년 54억원 상당 반출

□ 국내외 기구·NGO의 협업을 촉진하고 분배투명성 제고

- 「국내외 대북지원 기구·NGO 합동 포럼」 개최('14.10.22~23)
 - 21개 기관 참석, 상호 정보·노하우 공유, 협업 network 구축
-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시 분배투명성 제고 노력 병행
 - 강화된 분배투명성 확보방안(△사전분배계획서, △현장 모니터링, △최종분배내역서) 적용 및 국제기구 지원시 모니터링 강화 협의

□ 민간단체를 통해 농축산·산림 관련 물자지원 및 협력확대 노력

- 「5.24 조치」 이후, 처음으로 공동영농자재(온실·종자) 지원 허용
 - * 「경통」 딸기모종 지원(6.4), 「에이스」 온실자재 지원(9.3) 등 2.3억원 상당 지원

8. 사회문화교류 활성화

□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방북·방남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횟수 증가

- 현 정부출범 이후,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방북·방남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횟수 지속 증가

구 분 \ 연 도	2012년	2013년	2014년	합 계
접 촉(건)	147	197	219	563건
방 북(건)	11	5	31	47건
방 남(건)	-	2	5	7건

□ 기존의 남북간 문화유산 복원 사업 재개, 신규사업 발굴·협약

- '09년 중단된 겨례말큰사전 공동편찬회의 재개(7.29~8.6 심양, 10.30~11.8 평양)
 - * '10년 「5.24 조치」 이후, 남측 단독작업 '13년까지 3.2% 진척(63%→66.2%) ⇒ '14년 이후 10달간 3% 진척(66.2%→69.2%)
- '11년 중단된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·조사 재개(7.22~8.16, 개성)
 - * '11년-'13년 0㎡ 조사 → '14년 1,500㎡('07년부터 총 11,700㎡ 조사 진행)
- 신규사업 발굴·협약 : 평양 고구려고분군 발굴, 기록유산 남북공동전시 등

□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체육경기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지원, 종교 분야의 남북간 교류 확대·발전

- '14.10월 인천 AG 북한 선수단 참가(273명), 고위급 대표단 폐회식 참석 등
 - * 특히, '14.10월 북한은 최초로 장애인 국제경기에 참가(인천 장애인 AG, 33명), '14.11월 국제유소년축구대회(연천) 참가(「한반도 통일미래센터」 32명 체류)
- 불교계 합동법회, 기독교계 공동기도회 등 남북 협의 및 방북행사 활발히 진행('12년 8건 77명, '13년 3건 53명, '14년 12건 186명)

□ 2015년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대북 제의 및 준비체계 구축

- '14.12.29,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남북 공동 추진 대북 제의(통준위)
- '15년 연두업무보고시 8.15 남북공동행사, 민족 문화유산 보존 사업, 기타 문화예술·체육·종교 등 분야별 공동행사 개최 등 계획 발표
 - 분야별 실무협의회 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공동행사 추진

9.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

- '13년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변화와 기회의 계기로 활용,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합의('13.8)
 - 현안문제 및 제도개선 협의·해결을 위한 당국간 협의기구 구성·운영
 - 3통(통행·통신·통관)문제 해결, 투자보장, 안전한 출입체류 보장
 - 외국기업 투자유치, 노무·임금·보험 등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

- 당국간 협의를 통해 3통, 투자보장 등 제도개선 추진
 - 일일단위 상시통행 실시를 위한 전자출입체계(RFID) 구축 및 시범운영('14.3)
 - * RFID 도입으로 출입심사 시간 단축 : 인원(13초 → 5초), 차량(15초 → 7초)
 - 남북간 인터넷 망 구성 및 경로, 인증방식 등 인터넷 연결방식 합의('14.2)
 - 투자보장 장치 마련을 위해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('13.12)

-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여건 조성
 - 「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,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('14.1)
 - * 외국기업(그로쓰 베커르트) 1개사 개성공단 진출('14.6)
 - 외국인투자기업 종합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개소('14.9), 외국인투자유치 전용 영문 홈페이지(www.investgic.org) 개설('14.12)
 - 한·미, 한·EU, 한·터키 FTA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및 한중 FTA를 통해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혜관세 인정 노력

10.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토대 마련

□ 나진·하산 물류사업을 통해 남·북·러 3각협력의 토대 구축

- 「유라시아 이니셔티브」 실현을 위해 2013년 11월 한·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진-하산 물류협력사업 추진
 - 우리기업 3社(포스코·현대상선·코레일)와 러시아 철도공사간 양해각서(MOU) 체결, 2차레 나진항 현장실사 실시('14.2.11~13, 7.15~22)
- 11.24~12.1, 한·러 사업자 공동으로 「나진-하산 물류사업」 석탄시범 운송(러시아산 석탄 40,500톤) 점검 진행(나진~포항)
 - 전반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측의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, 철도-해운 복합물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기술적 점검 실시
 - * 11.24 3사(코레일·포스코·현대상선) 및 정부관계자 13명 나진 도착 → 11.25-26 석탄 선적 → 11.27 나진 출항 → 11.29 포항 도착 → 12.1 하역
- 추가 시범운송 등 사업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고,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방안 검토 예정
 - 2015년초에는 우리기업 3사와 러시아측이 본계약 협상 진행

11. 탈북민 맞춤형 정착 지원 확대

□ 탈북민들의 취업 및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통한 자활능력 개선

- 정착지원법령의 개정(11.29 시행)으로 자산형성 지원제도(미래행복통장) 실시 근거 마련
- 「자활사업단」(커피전문점·간병 등) 운영을 통한 자활역량 제고 및 「2014 탈북민 취업박람회」 개최(총5회)
- 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상담, 직업알선, 동행면접 실시, 773명 실재 취업으로 연결

<기초생계급여 수급률 변화>



<탈북자 고용률 변화>



<학업 중도탈락자 변화>



* 출처 :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2014 실태조사 결과

□ 탈북여성들의 취업·육아문제 해결 및 아동·청소년들의 진로 진학 문제 해결 노력

- 출산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연장('13년 5년→'14년 7년), 산모도우미 제도·쉼터 운영
 - * 최근 입국 탈북민 중 여성이 70%이상이고, 아동·청소년 비율도 증가
-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확대로 중도 탈락율 감소('13년 3.5%→'14년 2.5%)
 - * 초·중·고 20개교에 탈북교사 출신 코디네이터 20명 배치('14년)
-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재학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(생활비) 강화

□ 정부와 지자체, 공공기관·민간단체와 유기적인 거버넌스 강화

- 해외공관-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-하나원-하나센터 심리상담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속적·체계적 심리안정 치료 진행
- 탈북민 지역적응센터(하나센터)에서 체육·문화 활동 등 문화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탈북민-지역주민 간 상호교류 증진

- 맞춤형 정착지원을 위한 ‘통합관리시스템’ 구축(‘13.12.20 개통),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ONE-STOP 민원서비스(△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△재북 학력 확인서 2종) 제공 등

□ 언론·남북하나재단과 협력,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를 발굴·홍보

- 공중파·케이블 TV 활용 탈북민 인식제고 공익광고 전개 및 탈북민 성공정착 스토리 기획보도(‘13년 15건 → ‘14년 20건)
- 탈북민 정착성공 「스토리텔링」대회(‘14.12.4)를 개최하여 성공사례 확산

<붙임> 주요 통계

구 분	주 요 내 용																					
개성공단	<p>입주기업 : 125개('14년말) * 섬유73, 화학9, 기계금속24, 전기전자13, 식품2, 종이3, 도자기1</p> <p>연간 생산액 4.2억불('14.11월말) 누적 26억불 / 연간 수출액 1천4백만불('14.11월말) 누적 2.6억불</p> <p>북측 근로자 : '14.11월말 기준 5만 3천여명 * 평균임금 : 128.5달러('13년도), 153.2달러('14년도)</p>																					
이산가족	<p>이산가족상봉 : 설 계기 이산가족상봉('14.2.20~2.25, 금강산), 170가족(813명, 전후납북자(본인) 2가족, 전시납북자(유족) 3가족 포함)</p> <p>이산가족찾기 신청 현황('15.1월말 현재) : 총 129,655명 등록, 생존 68,303명, 사망 61,352명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90세이상</th> <th>89-80세</th> <th>79-70세</th> <th>69-60세</th> <th>59세이하</th> <th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인원수(명)</td> <td>8,592</td> <td>29,130</td> <td>18,389</td> <td>6,897</td> <td>5,295</td> <td>68,303</td> </tr> <tr> <td>신청비율(%)</td> <td>12.6</td> <td>42.6</td> <td>26.9</td> <td>10.1</td> <td>7.8</td> <td>1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이산가족 당국간 상봉 현황 : 남북 총 4,491가족(22,547명) 상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00년 8.15계기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이후 19차례 이산가족 상봉행사(대면상봉), 7차례 화상상봉 - 대면상봉 3,934건(18,799명), 화상상봉 557건(3,748명) 	구 분	90세이상	89-80세	79-70세	69-60세	59세이하	계	인원수(명)	8,592	29,130	18,389	6,897	5,295	68,303	신청비율(%)	12.6	42.6	26.9	10.1	7.8	100
구 분	90세이상	89-80세	79-70세	69-60세	59세이하	계																
인원수(명)	8,592	29,130	18,389	6,897	5,295	68,303																
신청비율(%)	12.6	42.6	26.9	10.1	7.8	100																
인도지원	<p>박근혜정부 대북 지원액 : 386억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△ 정부차원 : 275억원('14년 141억원(WFP 74억, WHO 67억), '13년 133억원(UNICEF67.4억, WHO65.1억)) △ 민간차원 : 111억원('14년 54억원(18개단체 26건), '13년 51억원(15개단체 22건)) <p>*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원액 : '13년 183억원, '14년 : 195억원, '15년 1월 : 12억원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<1995년부터 2015년 1월까지 누계 : 3조 2,582억원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△ 정부차원 : 2조 3,758억원(무상 1조 5,030원 / 식량차관 8,728억원) △ 민간차원 : 8,824억원('15년 10억, '14년 54억원, '13년 51억원) </div>																					
탈북자	<p>북한이탈주민 : '15.2.8 현재 총27,639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08년(2,803명), '09년(2,914명), '10년(2,402명), '11년(2,706명), '12년(1,502명), '13년(1,514명), '14년(1,396명), '15.2.8(121명) 																					
남북회담	<p>'14년도 남북회담 총 8회 개최(정치 2, 군사 1, 경제 3, 인도 1, 사회문화 1)</p> <p><박근혜 정부, 남북회담 개최 현황>(총 32회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정 치 3회 : 「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」 '14.10.4 「남북고위급접촉」 '14.2.12, 14 「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」 '13.6.9~10</p> <p>군 사 1회 : 「남북군사당국자 접촉」 '14.10.15</p> <p>경 제 25회 : 「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 1~7차」('13.7.6~7, 7.10, 7.15, 7.17, 7.22, 7.25, 8.14) 「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~5차 회의」('13.9.2, 9.10~11, 9.16, 12.19, '14.6.26) 「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」 12회(출입체류 4회, 3통 4회, 투자보호 2회, 국제경쟁력 2회) 「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운영을 위한 1차 회의」 '14.3.13</p> <p>인 도 2회 : 「남북적십자 실무접촉」 '13.8.23 / '14.2.5</p> <p>사 회 문 화 1회 : 「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북실무접촉」 '14.7.17</p> </div>																					

/끝/